

“한탄강 다목적댐으로 建設하라”

포천시의회,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시민추진위원회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포천시 의회 의원들은 한탄강 댐을 단순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 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포천시의회는 '정부는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라'는 현수막을 종합운동장 입구와 관중석 등에 게시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다목적적으로 전환하라', '한탄강댐 건설은 다목적댐으로' 등의 글귀가 새겨진 피켓과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한탄강 댐을 다목적용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등조절소위원회 구성, 2004년11월 한탄강 다목적댐 기본계획 백지화 건의, 2005년1월과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한탄강댐 건설 전면 백지화 의견 국회보고, 2005년8월 한탄강 댐 갈등조정업무 국무총리실 이관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지난 8월22일 전격적으로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한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강태선 부의장과 이병욱 의원의 결의문 낭독에서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연중 15일 정도만 댐에 답수한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으로 340만 평의 농토를 수장시키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려고 있다"면서 "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한뜻 한뜻을 모아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한탄강 댐을 단순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 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이 정부정책을 위해 목숨같은 땅을 헌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율러 "한탄강에 건설하려고 하는 홍수조절용 댐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험용으로 안전성과 홍

수조절의 능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없다"면서 "물부족 시기를 대비해 수자원으로 활용과 관광개발계획 등 수물주변 지역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 건설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미래와 시민의 화합이 영원하길”

포천시민대중 타종식, 최종규 추진위원장 강조

지난 19일 청성문화체육공원 반월각에서 시민과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민대중 타종식이 있었다.

이날 타종식은 내촌감리교회 강창성 목사와 포천유도회의 제례의식, 포천시사민연합회 석혜승 스님 등 종교계의 의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최종규 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장이 박윤국 포천시시장에게 포천시민대중 기증서 전달, 감사패 전달 등과 종각준공 태일절단, 타종식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준 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 "2003년10월19일 포천시승격 당시 고철모으기시 등을 이용해 종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후 2004년9월 시민대중제작을 위한 발기인 구성,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 모금사업승인, 2005년5월 종살계 및 주조계약, 2005년11월 종각건립지 확보, 2006년5월 종각건축(21평), 2006년8월 종주조 안치(15톤)에 이어 오늘 타종식을 갖게 됐다"고 그동안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최종규 시민대중제작 추진위원장은 "시민대중은 포천이 마을

군이란 명칭을 얻게 된 후 견성군, 포천군 등에 이어 1천500여년만에 시로 승격되어 이를 기념하고자 제작했다"면서 "시 승격당시 인구 15만명인 점을 감안했고 21세기를 지향한다는 뜻에서 종각을 21평으로 건축했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오늘 타종하게 될 포천시민대중은 이제부터 천년만년 우리 포천시를 지키며 포천시민의 부귀공덕과 안녕, 질서를 위해 울리거나 또 울릴 것"이라면서



포천시민대중제작이 완료되어 19일 포천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식을 가졌다.

"그동안 시민대중 제작이 가능하도록 성금을 관심해 주신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종 제작이 싫으면 자기가 성금을 안내면 될 것인데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동하고 여론화해 신문에까지 게재해서 성금을 내는 것이 중단이 되어 당혹스러울 일도 있었다"면서 "이 종이 울릴 때마다 포천시민들은 화합과 단결은 물론 희망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천년만년 잘 보존되고 잘 울려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동면 老人 점심식사 제공 이동 장암교회 경료호천 사상 고취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이동장암교회(담임목사 정태영)는 10월 18일 오전11시부터 이동면 지역 노인분들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점심식사는 이동장암교회가 경료호천사상 고취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점심식사 후에는 노인분들의 노래와 장기 등이 펼쳐졌으며 푸짐한 선물도 제공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노인분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앞장서는 이동장암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 맛있게 먹었다"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동장암교회 정태영 목사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작은 정성을 드림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 귀감이 되고 노인분들에게는 즐거운 마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한마당 이야기

본지는 포천시 영중면 출신이며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현재는 본지 자문위원이며 국민생활체육 줄다리기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이 추천하는 삶의 교훈이 되고 되새겨 볼만한 이야기 한마당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느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느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 부인이 "예!" 하자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애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청소 좀 할래?" 그 후 며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돌아보려 무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를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릿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느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어느 부인의 9일 간 천국 만들기

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느님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애야! 애들이 맘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 애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주었어?"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 바라."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그녀는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희생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희생의 집을 지면 인생의 집이 가벼워집니다.

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걸 때, 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때, 희생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을 각오할 때 행복의 신비가 찾아옵니다.

자기 몰입의 신비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만 '희생의 신비를 아는 자'는 되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더 나아가 죽고자 하면 죽고, 살리고자 하면 삽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잘 소화하는 소화력이 있을 때 행복의 키가 부쩍 자리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점심식사 제공!

포천시 노인 무료급식사업 호평

포천시의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는 올해 8월16일부터 포천시 신원동 포천고교 정문 앞에 있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는 20평 남짓한 아담한 식당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살며 식사를 제때 챙기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

대한성공회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SK그룹과 실업극복재단의 시설 지원으로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무료급식 초기에는 10명도 채 안 되는 노인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많은 홍보와 입소문을 통해 하루 30여 명으로 이용인원이 크게 늘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식사 재 구입에서부터 조리과 배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영양과 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실제 행복도시락 영양사 김명옥 씨는 위생과 영양 모두에 있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급식은 신음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포천 나

눔의 집에서 가까호호 직접 방문해 식당까지 노인들을 차로 모셔오고 있다. 포천시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체계를 점차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객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전기공사전문업체



최 두 열 대표이사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기타 전기공사
- 빌딩
- 호텔
- 소방설비공사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